

최악 치닫는 석방협상

'기독교 전파자' 첫 거론...강경 선회

탈레반 사령관 "협상 실패" 선언 하기도 아프간 정부 협상단 일부 카불로 철수

아프간 가즈니 주 당국이 30일 오전 탈레반측에게 협상 시한을 이를 추가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탈레반이 이를 거부하면서 석방사태의 암운이 짙어졌다.

30일 정오(한국시간 오후 4시30분)를 넘지 못한 22명의 석방 협상시한으로 제시했던 탈레반은 아프간 가즈니 주 당국의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이어 아프간 이슬라믹 프레스(AIP)가 한 탈레반 사령관의 "협상이 실패했다. 인질을 살해하기 시작하겠다"는 전화 통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협상 실패에 따른 인질 살해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극에 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탈레반측이 전격적으로 협상 시한을 4시간 연장(한국시간 오후 8시30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한국인 인질들이 억류돼 있는 지역인 가즈니주의 미라주딘 파탄 지사는 이날 AP와의 전화통화에서 협상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희망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탈레반 대변인인 카리 모하마드 유수프가 로이터 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아프간 정부가 이 협상시한이 제시된 전날 오후부터 탈레반과 접촉을 갖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이 시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절하면서 또다시 상황이 악화됐다.

이런 가운데 아프간 정부협상단의 일원인 가즈니주 출신 국회의원 마흐무디 가일라니는 30일 탈레반의 협상시한 만료를 앞

두고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가일라니는 "정부 방침은 (탈레반) 죄수를 석방하지 않는다는 것인 반면 탈레반은 여전히 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일라니는 탈레반이 여성인질 선(先)석방 제안도 거부했다면서 "석방협상이 현재로서는 진전이 없고 아마도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아프가니스탄 정부 관리와 의원으로 구성된 협상단 일부가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자 지난 29일 밤(현지시간) 칸다하르에서 카불로 철수했다고 현지 소식통이 30일 밝혔다.

현지사정에 정통한 아프간 소식통에 따르면 "탈레반 출신 국회의원 압둘 살람 로케티 등 아프간 정부와 의회 협상단 3~4명이 협상에 진전이 없어 29일 밤 카불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탈레반과 관련된 부족 원로와 한국 대표단이 긴 나머지 협상단은 계속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탈레반 대변인으로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29일 밤 이 소식통과 한 전화통화에서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여성을 먼저 석방하진 않겠다"며 "남녀 인질을 섞어 석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마디는 또 이 통화에서 "이들 한국인은 기독교인이고 (무슬림인) 아프간인에게 기독교를 전파해 개종하려고 온 사람들"이라고 언급했다. 아마디는 그간 종교는 납치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새 시한설정 에 맞춰 처음으로 예민한 종교 문제를 거론, 압박하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故) 배형규 목사의 시신이 도착한 30일 배 목사의 부인인 김희연씨와 고인의 형인 배신규씨가 경기도 분당에 마련된 피랍가족모임 사무실을 방문. 침뚫힌 표정을 짓고 있다.

■백목사 시신 국내 도착

지난 19일 탈레반 조직에 납치돼 살해된 고(故) 배형규(42) 목사의 시신이 아랍에미리트항공 EK 322편을 통해 30일 오후 5시께 인천국제공항내 대한항공 화물청사에 도착했다. 배 목사의 시신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이날 새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옮겨졌고, 두바이발 인천행 항공편으로 국내에 운구됐다.

이날 대한항공 화물청사에는 유가족들이 나오지 않았으며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인 안양샘병원 박상은 원장이 나와 배 목사 시신을 인수했다.

사인 규명 위해 검사...기증은 어려울 듯

배 목사의 시신은 입국 관련 수속이 마무리된 뒤 미리 준비된 차량에 실려 임시 안치 장소인 안양샘병원으로 향했다.

배 목사는 지난 13일 아프간으로 떠나기 전 유서를 남겨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시신을 환자 치료와 해부학 실습용으로 기증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신 기증 등 문제는 안양샘병원 박 원장(분당샘물교회 장로·배 목사 주치의)과 의논해 결정하라"고 가족들에게 당부한 것

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은 배 목사의 시신이 30일 오후 국내에 운구돼 안양샘병원에 임시안치되면 검찰 주관하에 검사(檢屍)에 들어가기로 했다.

배 목사 검사에는 수원지검 공안부 김병현 검사·마약조직범죄수사부 신은석 검사가 참여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시과의 경찰관, 유족 등이 입회할 예정이다.

검찰은 검시를 통해 배 목사 시신의 외형,

상처 모양 및 상태 등을 면밀히 검사한 뒤 정확한 사망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부검을 할 계획이다.

검찰은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테러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건의 성격과 유족들의 심정을 감안, 부검이 필요할 경우 유족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배 목사의 시신은 피살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 사실상 기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략적 우위 노린 심리전

■잇단 인질 옥성 공개 왜?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22명 피랍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납치세력인 탈레반측이 피랍자의 '음성 공개'를 심리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피랍 한국인 인질의 음성이 공개된 것은 아프가니스탄 현지 가이드 임현주(32)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목소리를 내보낸 지난 26일 미국 방송사 CBS의 보도가 처음이었다. 당시 이 여성은 CBS를 통해 "우리는 지금 위험한 시기에 놓여 있다"면서 "도와주세요"라고 거듭 호소했다.

KBS는 미국 CBS가 옥성을 공개하자 "우리도 녹음 내용을 2만달러에 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탈레반측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이를 거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28일에는 유정화(39)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로이터 통신사와 통화를 한 인터뷰 내용이 음성과 함께 보도됐으며, 29일에는 일본의 한 방송사가 피랍자 2명의 옥성을 확보했다며 한국에 있는 피랍자 가족들에게 음성 확인을 부탁한 사실이 전해졌다.

30일 국내 한 언론도 이지영(36)이라고 밝힌 한 인질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

다. 납치 이후 객관적인 생사 확인을 위한 자료를 한동안 제공하지 않던 탈레반측이 최근 들어 인질들의 옥성 공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탈레반측이 통하나 공개를 허용한 대부분 인질들의 발언 내용은 절박한 상황과 위협을 강조하면서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발언 내용이 탈레반의 입맛에 맞게 전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질들의 이런 발언은 탈레반에 의해 의도되거나 조작된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잇따른 인질 옥성 공개는 교착 상태에 빠진 인질 석방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탈레반측 심리전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옥성 녹음이나 직접 전화인터뷰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탈레반측이 언론 사들로부터 받아 챙기는 돈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이런 경우 이런 '목소리 거래'에 응하는 언론사들은 비록 피랍자들의 동정과 처한 상황을 알고자하는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탈레반의 심리전을 대리 수행하면서 오히려 교섭에 난항을 가져오도록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협의를 통해 해법 찾기 카르자이 재면담 가능성

■백목사 남은 임무는?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로 현지에 파견된 백종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체류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 미묘한 협상 국면과 맞물려 다양한 관측을 낳고 있다.

전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백 특사의 현지 활동 계획에 대해 "하루 이틀 더 머물면서 상황을 볼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추가로 아프간 고위관계자와 접촉할 수도 있지만 아직 계획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백 특사의 귀국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카불에 체재중인 백 특사는 아프간 고위 당국자들과 추가로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직 언제 돌아올 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 단계에서 누구를 만날 지도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현지에 도착한 백 특사는 아프간 내무장관과 외무장관 등을 잇따라 만난 뒤 전날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과 면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

고 아프간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 특사로서의 임무를 모두 마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도 그의 추가 체류는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

그 배경을 놓고 일단 백 특사가 전날 카르자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 이를 바탕으로 아프간 고위 당국자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라면 백 특사가 추가로 만날 고위 당국자의 면면을 정부가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백 특사가 카르자이 대통령과의 추가 면담을 위해 대기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백 특사가 전날 카르자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추가 접촉을 통해 카르자이 대통령에게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 측 요구사항에 대해 더욱 유연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재차 요청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큰생각, 큰행동 큰꿈이 있는기업

정장 진보 세계발표 세계야영 대승!

구분	기업명	주요 실적	특징
1	현대자동차	2007년 1~6월 매출 1,200억 원	세계 1위 자동차 기업
2	삼성전자	2007년 1~6월 매출 1,500억 원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3	SK하이닉스	2007년 1~6월 매출 1,000억 원	세계 1위 DRAM 기업
4	LG전자	2007년 1~6월 매출 1,100억 원	세계 1위 가전 기업
5	삼성물산	2007년 1~6월 매출 1,300억 원	세계 1위 건설 기업
6	SK이노베이션	2007년 1~6월 매출 1,200억 원	세계 1위 석유화학 기업
7	현대중공업	2007년 1~6월 매출 1,100억 원	세계 1위 조선 기업
8	삼성중공업	2007년 1~6월 매출 1,000억 원	세계 1위 조선 기업
9	대우중공업	2007년 1~6월 매출 1,000억 원	세계 1위 조선 기업
10	한진중공업	2007년 1~6월 매출 1,000억 원	세계 1위 조선 기업